

숨고 도망가고...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비상

장성서 14명 숙소 이탈...전남 3년간 2212명 '전국의 29.6%' 출퇴근 관리·안정적 인력 공급 이점 농협 주도 '공공형' 확대를

장성지역 농가가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4명이 새벽에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 잠적하면서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는 지역 농가 주도의 계절근로자 투입 대신, 농협 주도의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전남도와 장성군 등에 따르면, 태국 국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14명이 지난 2일 새벽 장성을 숙소에서 집단으로 이탈했다. 이들은 지역 농가의 신청을 받은 장성군이 법무부에 요청한 데 따라 지난 5월 2일 계절근로자(E-8)비자로 입국한 20~30대 태국 국적 근로자들로, 해당 농가가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표고버섯·두릅·사과 재배 등의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계절근로자들은 '농촌형'과 '공공형'으로 나뉘는데,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경우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노동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대규모 영농을 하는 농가에서는 최장 8개월 동안 고용해 자유롭게 작업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점 등으로 '공공형'보다 '농촌형'을 선호한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올해 전남도가 지역 농가에 지원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9630명 중 농협 주도로 운영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392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9200여명은 개별 농가가 외국인 노동자와 직접 계약해 고용하는 형태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개별 농가가 숙소를 마련해야 하는데, 일과 후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농가의 부담 요인으로 꼽혀왔다.

당장,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국내에 계절근로자·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뒤 중도 이탈한 외국인 노동자(2021년~2024년 7월)가 7465명에 이르는데, 이들 중 전남 지역 이탈 노동자는 2212명(계절근로 474명·고용

허가 1738명)으로, 전국의 29.6%나 차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이탈률이 70% 이상인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 인력 송출을 3년 간 제한하고 있다.

장성군은 이탈 사고와 관련, 법무부와 태국 대사관에 신고를 완료하고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관내 농가 근로 상황 점검에 착수했다.

장성 계절노동자 집단 이탈 사고를 계기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커지고 있다.

개별 농가가 숙소와 근로 관리 책임을 지는 '농촌형' 대신, 농협이 출퇴근 관리를 전담하면서 이탈 위험을 낮추는 '공공형'을 늘려 안정적 인력 공급 체계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장성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중이었다.

장성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개별 근로 계약을 맺은 다른 농가들도 많이 당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는 8월부터 40명이 머무를 수 있는 공공형 숙소를 착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10월 중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고3 전국학력평가 202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10일 광주시 서구 서석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리박스쿨' 5·18까지 전드렸다

고민정 의원 '전두환 명예회복 위한 왜곡·편향 TF 회의' 문건 공개

극우 성향 강사를 '늘봄학교'에 대거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단체 '리박스쿨'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편향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문건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 을) 의원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전두환 명예회복 현안문제연구회 결성 추진 TF 3차회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리박스쿨 관계자들은 지난 2023년 2월 3일 '전두환대통령 명예회복을 위한 5·18

및 5·18 및 김대중 실체 바로알리기 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TF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5·18 관련 단체 현황조사, 실태보고서 작성 및 발표회', '5·18명단공개 단체와 연결해 국민의 알권리 운동 전개'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에는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쓴 '전두환리더십',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등 책을 읽는 독서교실을 열고,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가처분소송을 추진하겠다는 등 계획도 적혀

있었다. 또 '정부가 운동권 주사파 간첩을 폭로할 때 동시에 전두환 알리기 운동 전개가 필요하다', '5월 중 행사 개최를 위해 4월 말까지 준비 완료' 등 내용도 포함됐다.

5·18 관계자들은 "조직적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려 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려는 의도를 갖고, 5·18 역사를 왜곡해 자기 세력을 끌어모으려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박경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런 문건은 단순하게 교육자 한 두 명의 주장이 아니라, 우익 단체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철저하게 역사 왜곡을 하려는 큰 그림 중 일부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식지 않는 폭염 광주·전남 무더위 지속

광주지방기상청은 "12일까지 동해북부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최고체온은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겠다"고 10일 예보했다.

11일 아침최저기온은 20~24도, 낮최고기온은 32~35도를 보이겠고, 12일 아침최저기온은 19~24도, 낮최고기온은 31~35도로 예상된다.

13일은 서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을, 14일은 제주도남쪽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한낮 기온이 33도를 웃돌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우리나라 상공에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잡으면서 폭염이 지속되겠다고 내다봤다.

다음주에는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겠으나,

서풍을 타고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현재 광주·전남에는 진도, 거문도·초도, 흑산도·홍도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다.

밤 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며 올해 들어 10일째 열대야도 관측됐다. 광주를 기준으로 폭염 특보는 12일째, 열대야는 지난 5일부터 5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전남에서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폭염으로 인해 18개 시·군 154개 농가에서 닭·돼지·오리 등 가축 총 9만 5532마리가 폐사해 14억53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진도 가계해수욕장 전경.

폭염 피할 전남 해수욕장 바로 여기!

도, 여수 웅천친수공원·진도 가계해수욕장 등 4곳 추천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뜨거운 도심에서 벗어나 시원한 바다를 찾게되는 시기, 어디로 갈지 고민인 지역민들을 위해 전남도가 변잡하지 않게 쉼을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 4곳을 선정, 추천하고 나섰다. 이들 해수욕장은 갯벌 위주의 서남해안에서도 모래사장을 갖춰 찾는 피서객들이 끊이지 않는 명소다.

여수 웅천친수공원해수욕장은 도심과 인접한 바다를 찾는 지역민들이 선호하는 해수욕장이다. 갯벌이 아닌, 모래사장을 갖추고 있으며 패들보드, 윈드서핑, 스노클링 등 다양한 해양 레저 체험이 가능하다는 점도 젊은층의 발길을 불러들인 장점으로 꼽힌다. 해변 옆으로 캠핑장이 조성돼 있고 예술의 섬 장도로 걸어서 이동하면서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명소다.

영광 가마미해수욕장은 곱슬숲이 눈길을 끄는 해수욕장. 반달 모양의 넓은 백사장 뒤로 2000여 그루의 곱슬이 숲을 이룬다. 모래점질의 추억을 건질 수 있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선호하는 어린이 물놀이장(아쿠아월드)도 갖춰

다. 도심 속 답답함을 떨쳐낼 한적한 서해 낙조는 덩이다. 오는 18일 정식 개장.

진도 가계해수욕장은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회동마을에 위치한 곳으로, 3km에 이르는 백사장, 소나무와 잔디로 꾸며진 친수공간과 편의시설 등으로 매년 관광객 발길을 끊이지 않는다. 18일부터 본격 개방된다.

무안 탐머리해수욕장은 수심이 완만해 어린 자녀를 둔 가족 단위 물놀이객들이 관심을 끌 만하다. 해수 숲 사이 텐트 설치 가능한 데크도 갖춰 캠핑을 하며 해수욕을 즐기는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야간 경관 조명도 갖춰 밤에도 볼거리가 있다.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관광객을 맞는다.

전남도 관계자는 "긴 해안선과 울창조밀한 섬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해양 경관으로 볼거리가 많은 전남 해변에서 무더위를 이겨내고 별미 먹거리를 맛보며 치유와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